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이렇게 준비됩니다”

13개 행사 23개국 1000여명에게 작품의뢰
젊은 작가들의 10m 대형작품 전시
관람중 현장서 작품 구매 가능토록 기획

2019년, 그 어느 때보다도 서예의 진흥을 위해서 서예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해이다. 서예진흥정책 포럼이 발족되어 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 하면서 서예진흥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미 세계적으로 그 규모의 방대함을 격조와 권위의 고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제12회 행사가 올해 10월에 개최된다. 1997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우리 한국의 서예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각국의 서예가들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서방 여러 나라 서예가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꾸준히 성장하여 금년에 영광스러운 제12회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결과, 서예의 본체 및 본질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바, 동방의 전통철학을 구성하는 대표 명제인 '도(道)'와, '기(氣)'를 중추로 서예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근원적 본질의 순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주제를 '자연정신과 서예'로 설정했다. '서예 도(道)를 밝히다'전을 비롯하여 총 29개 행사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23개국 약 1,000여명의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상황으로 작품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몇몇 전시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젊은 서예가들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고 전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10m의 대형작품으로 탄생한 '서예 비상전'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되며, 현대식 건축문화 속에서 서화 애호가들은 아파트등 주거문화를 감안하여 소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제 서화예술은 대작과 소품 창작능력을 겸비함으로써 높고 넓은 공간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현대식 소규모 공간에서도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예비엔날레에서 준비한 서화융화전이 주목이 된다. 실용적인 소품으로 작품화하여 관람도중 마음에 드는 작품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안동환 전북도 문화예술과장은 "깊어가는 10월의 가을날 21세기 세계인의 각광을 받으며 세계의 문화시장에 우뚝 설 새로운 문화콘텐츠인 서예를 몸으로 느끼고 마음에 담아가는 행사로 만들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교육청, 내달 2일까지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 행사... 아이들과 마주하는 자리 마련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아이들의 마음과 마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너 때문에 못살겠다', '넌 못해, 하지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큰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나?' 등 25점의 작품이 소개되며 전시 그림마다 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지, 대신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설명도 덧붙여 놓았다. 도교육청은 아동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와 공감을 넓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오전 11시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장,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시물 관람, '말상처'에 대한 아이들의 이야기 듣기, '교육감의 약속' 말상처 하지 않기 서명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회 기념행사가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장,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장은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로 인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벽을 쌓게 된다.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그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더위에 지친 여름 COOL한 무주로 오세요”

구전동 다목적광장서 힐링 음악회 개최

무주군이 오는 27일(19:30~) 구전동 다목적광장 특설무대에서 'COOL한 밤 힐링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주문화원이 주최·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하는 것으로 무주반디예술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풍물과 물난타, 색소폰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주문화원 맹감상 원장은 "휴가철 무주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준비한 특별한 무대"라며 "예술단 공연으로 배가 될 무주구전동의 매력을 흠뻑 느껴보시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반디예술단은 설천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풍물과 난타, 색소폰 등 여러 동아리들이 연합한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으로 2018년 7월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지역과 주민, 관광객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왔다. 무주반디예술단원들은 "아마추어들이지만 우리 고장을 찾아와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열정과 감사가 듬뿍 담긴 음악회에 많이들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라"고 전했다. (무주문화원 063-324-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 완판 특별공연 '타울림'

25일 연지아트홀서 오후 7시 공연

정읍시립농악단이 오는 25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에서 특별공연 '타울림'을 선보인다. 특별공연에서는 때리고 쳐서 감흥을 일으킨다는 타(打)를 주제로 펼쳐지는 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 완판을 볼 수 있다. 공연은 인내천과 샘고을 풍류, 빗가락 정음, 녹두에 피는 꽃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된다.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맞아 동학농민혁명군의 넋을 달래는 비나리로 펼쳐진다. '샘고을 풍류'는 정읍농악의 우수한 음악적 측면을 극대화시킨 작품으로 전라도의 멋과 정음의 흥을 감상할 수 있다. '빗가락 정음'은 빗소리로 비유되는 장구와 물이 마르지 않는 정음을 전국 설장구의 원형인 호남우도 정음설장구를 바탕으로 선보인다. '녹두에 피는 꽃'은 마당에서 펼쳐지던 농악을 무대화시킨 판굿 중심의 작품으로, 각 악기들의 예능과 개인 놀이로 구성돼 개인 기량을 엿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악 소리에 무더위는 날리고 가슴엔 감동의 울림이 남는 신명 나는 공연으로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립농악단은 지난 4월 벚꽃 축제에서 '벚꽃길 호남우도농악'을 탔다 공연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 외 초청공연을 통해 정읍농악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